

# “대출이자 갚느라 웃도 못사요”

### 고금리·고물가 그늘...이자 비용>웃·신발 지출비 통계 이후 첫 역전 3분기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 11만4900원...전년비 20.4% '경중' 의류·신발 지출 10만4천원 전년동기대비 11% 줄어...감소세 뚜렷

직장인 김준희(여·33)씨는 올 10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은행에서 1억 19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원금균등상환에 15년 납부, 금리 2.1% 조건으로 매달 원금 64만원에 이자 20만원 등 매달 84만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 김씨는 현재 월급의 절반 가량을 전셋집 대출금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데, 이자만 놓고 보면 월급의 10% 정도를 쓰고 있다. 김씨는 “다른건 몰라도 이자 비용은 갚아줄 때마다 속이 쓰린다”며 “지난달 가계부를 살펴보니 이자 비용이 의류 구입비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10만원 짜리 겨울 코트를 구매한 것 외에 의류 구입은 일절 하지 않았다. 대출을 포함한 고정지출을 감당하기도 벅찬데, 고물가 속 웃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지고 있는 겨울 코트가 오래돼 어쩔 수 없이 새것을 구매했다”며 “고물가에 지출이 부담돼 가장 먼저 의류 구입비를 줄여야 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이자를 갚는데 드는 돈이 웃과 신발 같은 의류 구입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웃·신발 구입 지출을 넘

어선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은 고금리로 이자 비용을 늘어난 데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웃·신발 지출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전국·1인 이상·실질)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9만5500원)보다 1만9400원(20.4%) 늘었다. 반면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11만7700원)보다 1만3700원 줄어든 10만4000원을 기록, 이자 비용보다 9.4%(1만900원) 적었다. 이자 비용이 의류·신발 지출보다 커진 것은 2006년 1인 가구가 포함된 가계동향에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이런 역전은 고금리·고물가 여파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기록적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 이자 비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자 비용 증가율은 지난해 3분

기 10%를 넘어선 뒤 계속 보폭을 넓혀 올해 2분기 37.9%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 1분기 8만2000원 수준이었던 가구당 이자 비용은 지난해 4분기 1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3분기째 11만원을 웃돌고 있다. 반면 의류·신발 지출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8.5% 줄어들며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3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고물가, 높은 이자비용 탓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웃·신발 소비부터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2·3분기 의류·소비 지출은 가계 소비지출 12개 항목 중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유달리 가파른 웃·신발 물가 상승률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1~11월 의류·신발 누적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12개 항목 중 상승률이 가장 높다. 고물가로 위축된 내수를 늘어난 이자 부담이 다시 제약하는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는 누적된 물가 압력이 쉽게 가시 않는 탓에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현 긴축기조)를 지속하겠다”며 “현실적으로 6개월보다는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가계 살림에 어떻게 현실화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시·외식비 등 비 필수재 지출 위축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아, 국내 최대 전력구매 계약... 'RE100' 조기 달성 '속도'

### 연 250GWh 재생에너지 공급...국내 오토랜드 전력량 31% 해당 태양광 자체 발전시설도 설치...연 86GWh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

기아가 국내 오토랜드 전력량의 31%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전력구매계약(PPA)을 맺고 'RE100' 조기 달성에 나선다. 기아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현대건설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PPA는 전기 사용자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기아는 이번 PPA 협약으로 219MW(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연간 250GWh(기가와트

시)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아는 오토랜드 광명·화성 전기차 전용공장에 재생에너지를 우선 공급해 친환경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PPA 체결을 통해 기아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권고 수준인 '2030년 재생에너지 60% 사용'을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는 재생에너지 사용 외에도 국내외 생산기지 내 가용부지에 총 61.8MW 규모의 태양광 자체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86GWh의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사용할 예정이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4.2MW, 인디아에 1.6MW 태양광 시설이 가동 중이며, 2027년까지 오토랜드 광주, 미국-슬로바키아-멕시코 등 국내외 생산기지에 56MW 태양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아는 2030년까지 모든 업무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확대 적용 프로젝트 등 친환경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정의철 기아 기업전략실 전무는 “기아의 기업 비전인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달성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딱딱한 금융업 가라” 광주은행 ‘와뱅크’ 출시

### 여행명소·배달음식 주문 등 ‘비금융 생활서비스’ 제공

광주은행은 창립 55주년을 맞아 개인 스마트뱅킹을 개편한 ‘광주와(Wa)뱅크’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와(Wa)뱅크’는 고객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으며,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목표로 고객들을 모이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광주은행은 ‘광주 와(Wa)뱅크’를 통해 복잡하고 딱딱한 금융업이 아닌 ‘비금융 생활서비스’를 강조해 고객들이 쉽고 재밌게 정보와 생활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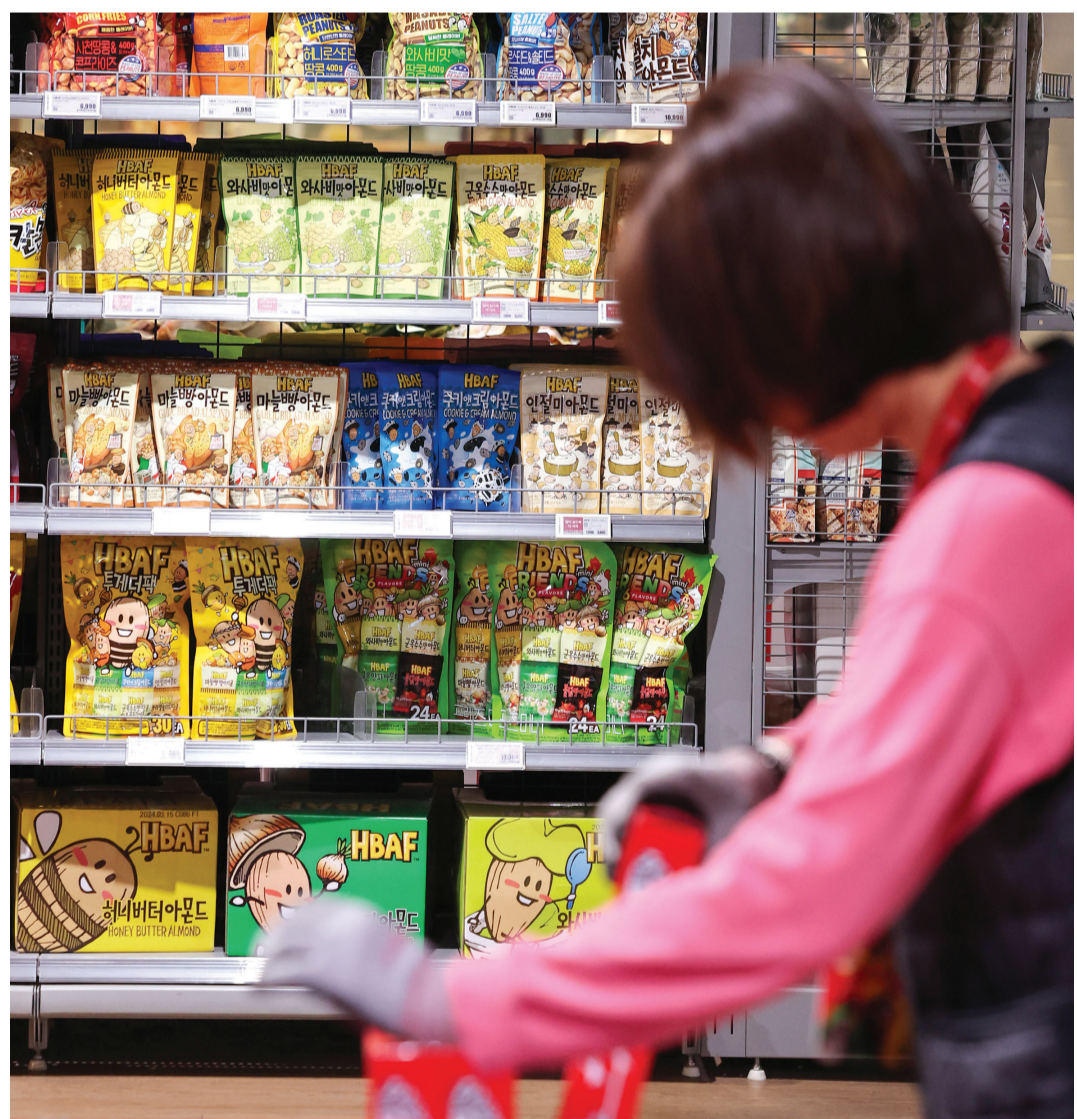
‘광주 와(Wa)뱅크’에는 광주·전남 맛집과 여행명소, 지역 특산물, 배달음식 주문, 해외여행 예약, 생활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오늘의 운세 등 재미요소가 추가됐다. 특히 배달음식 주문은 광주상생카드와 연동해 이용자의 정보탐색 시간과 비용 절감 등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보기 기능 및 건강 관련 정보를 탑재한 ‘건강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며, 가입한 보험정보를 연동해 여행사 보험, 레저보험 등 필요하지만 미처 가입하지 못했던 생활보험가입도 가능하다. 또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개인화에 초점을 둔 ‘메인화면’도 주목할 만하다. 자주 쓰는 계

좌와 카드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접근성과 사용성을 개선했고, 보유 자산별 현황과 금융일정, 신용점수, 소비패턴분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박종춘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부행장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업을 고도화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생활서비스를 확장해 단순한 금융 업무를 넘어 다양한 생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현실로’

### 1년새 37개 상품 용량 줄어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된 상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포털 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울스 7개 상품과 가정배달용 제품인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의 경우 자사물을 통해 용량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9개였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 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개선... ‘반씩 부담’ 명시

### 공정위, 자동차 운전학원 약관도 개정...중도 해지 시 100% 환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파트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

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관한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원~10억원일 경우 15만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원이 부과된다. 개별 계약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떠넘기기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연세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건보주택과 상이한 마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신설됐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NH농협은행 광주본부 ‘NH카드 연도대상’ 7연패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사진)는 13일 ‘NH카드 연도대상’ 7연패를 이뤘다고 밝혔다. NH카드 연도대상은 농협카드 사업추진 증대와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우수 사무소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하는 제도로 농협카드부 본 최고 권위의 상이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역점사업인 카드사업 추진을 위해 마케팅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이벤트 실시 등 다양한 추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결과, 지난 11일 기준 2만명이 넘는 카드 신규회원을 유치해 7년 연속 전국 1위의 금자탑을 쌓

았다. 박내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카드마케팅에 열정을 보여준 27개 소 사무소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카드 사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그 결실을 다양한 사업으로 환원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발전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완도군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중기부 장관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3일 2023년 우수 특화특구로 ‘완도군 해조류·전복산업특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의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완도군 해조류·전복산업특구’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와 특허법 등의 특례를 받아 완도 국제해조류심포지엄,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해조류화장품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소멸 위기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고용 및 특화모델 발굴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0.66(-24.61)
↓ 코스닥	829.31(-10.22)
↑ 금리(국고채 3년)	3.465(+0.019)
↑ 환율(USD)	1319.90(+5.90)